

2025년 3월 6일 (목)

Analyst. 김주형, 박재은



GROWTH
RESEARCH

[2025 인터배터리 산업보고서]

GROWTH Industry

역대 최대 규모 달성, 관심 집중된 2025 인터배터리

2025
INTER
BATTERY

25.03.05 (Wed) - 07 (Fri)

Coex, Seoul, South Korea

목차

Part 1. 2025 인터배터리 개요

Part 2. 핵심 주제 및 트렌드

Part 3. 주요기업 관전 포인트

Part 4. 관련기업

기업분석

동원시스템즈(014820)

엘앤에프(066970)

Intro

2025 인터배터리가 다가오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2025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이차전지, 소재/부품, ESS, 폐배터리 재활용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및 해외 기업 688곳이 참가하여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트렌드와 각 기업이 가진 유망한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2025 인터배터리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협력 및 합작법인(JV) 설립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2025 인터배터리의 주요 키워드는 '원통형 배터리', 'LFP', '글로벌 공급망 협력'으로,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K-배터리 기업의 대응 및 기술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사 중간에 부대 행사인 미국 배터리 포럼 등 각국 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각국 이차전지 협력 방안 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5 인터배터리의 핵심 주제 및 트렌드와 행사에서 주목해야하는 주요 기업의 관전 포인트를 기술했다. 또한 2025 인터배터리의 핵심 주제와 접목된 국내 상장 기업을 분석하였다.

1. 2025 인터배터리 개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2025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이차전지, 소재/부품, ESS, 폐배터리 재활용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2025 인터배터리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월 초에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에서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3사부터, BYD, EVE 등 글로벌 배터리 셀메이커까지 처음으로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행사에는 총 600여개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2025 인터배터리에서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트렌드와 각 기업이 가진 유망한 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배터리 캐즘에 따른 시장 둔화가 이어지는 추세 속에서, 캐즘 이후를 대비한 각 기업의 기술 경쟁이 펼쳐지며 **2025 인터배터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가** 전망된다. 행사 참여 해외 기업 수도 172사로 전년 대비 (115사) 급증했으며, 전시 면적 또한 20% 이상 증가했다.

기술 경쟁에서 합작법인 설립까지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협력 및 합작법인(JV) 설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배터리 파운드리 기업인 JR 에너지솔루션은 이스라엘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전문 기업 스토어닷과 합작법인 설립을 행사에서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림 1. 2024 인터배터리 전시장 전경



그림 2. 2025 인터배터리 개요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개최 시기	매년 3월 초
개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코엑스)
주요 대상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 및 투자자, 업계 전문가
주요 내용	이차전지 및 배터리 산업 동향, 기업 기술 전시, 투자 및 파트너십 기회 모색

2. 핵심 주제 및 트렌드

2025 인터배터리의 슬로건은 'Breaking Through, Charging Ahead'로, 캐즘에 따른 정체를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도전과 극복 의지의 의미를 담았다.

주요 KEYWORD:
원통형배터리,
LFP, 공급망 협력

이번 2025 인터배터리의 주요 키워드는 '원통형 배터리', 'LFP', '글로벌 공급망 협력'으로,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K-배터리 기업의 대응 및 기술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높은 안전성 및 용량으로 소형 기기에서부터 전기차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2) LFP(리튬인산철 소재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한 중국의 BYD와 EVE는 LFP 배터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또한 K-배터리의 LFP 배터리 개발 및 라인 구축 전략을 선보일 예정이다.**
- 3)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발 배터리 소재 독점 및 저가 물량 공세에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도 행사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행사 중간에 개최될 부대 행사인 미국 배터리 포럼에서 8개 주 정부 인사가 참여한-미 배터리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2025 인터배터리 포스터



자료: 2025 인터배터리, 그로스리서치

그림 4. 2025 인터배터리 주요 키워드

원통형배터리	높은 안정성 및 용량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배터리
LFP (리튬인산철)	리튬 계열 배터리 중 하나로,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충전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발 배터리 소재 독점 및 저가 물량 공세 대응 계획 논의 전망

자료: 그로스리서치

3. 주요기업 관전 포인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기업 다수

이번 2025 인터배터리에서는 다수 기업들의 배터리 시장 대응 전략과 기술개발 현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 중에서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주요 전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3.1 삼성SDI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 시장 선도

삼성SDI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지름 46mm 원통형 배터리 라인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4680, 4695, 46100, 46120 등 4개 제품으로 구성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21700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크게 향상되어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업계에서 미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현황도 소개할 예정으로, 지난해 말 다수 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다음 단계의 샘플을 준비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이 낮고 주행거리를 길게 증가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배터리로,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24 인터배터리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주력 ESS 제품, SBB(Samsung Battery Box) 1.5도 공개할 것으로 밝혀졌다. SBB는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SBB 1.5는 업그레이드 된 모듈 내장형 직분사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과 용량을 높인 것으로 주목받는다.

그림 5. 삼성SDI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자료: 삼성SDI, 그로스리서치

그림 6. 삼성SDI SBB 1.5



자료: 삼성SDI, 그로스리서치

유럽, 미국 자동차 업체와 수주 선점

3.2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지름 46mm 시리즈 셀 라인업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유럽(벤츠) 및 미국(테슬라) 자동차 업체와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수주 소식을 밝히며 제품 경쟁력을 실제 시장에서 증명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및 출력 측면에서 최대 5배 이상 향상시킨 것으로, 향후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 경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전시 부스에서 자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앵테라 모터스의 태양광 모빌리티 차량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은 CES 2025에서 앵테라 모터스 사에 배터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해당 계획이 좀 더 진전되어 배터리가 직접 탑재된 모빌리티 차량을 전시한다.

원통형 배터리 개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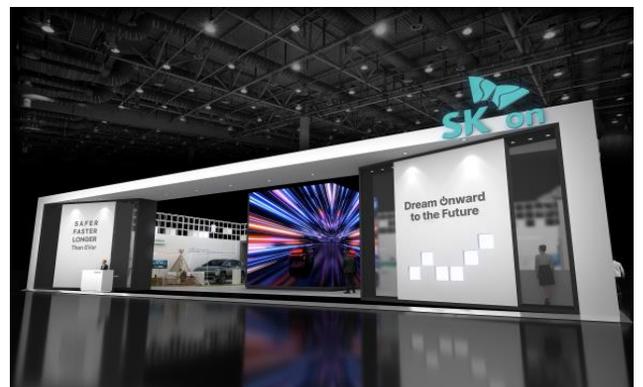
3.3 SK온

SK온은 일부 완성차 업체의 개발 요청에 따라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에서 SK온은 원통형 배터리의 실물 모형을 공개하여 향후 개발 전략과 방향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 무선 BMS를 접목해 성능을 극대화한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을 전시하여 향후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따른 액침냉각 및 무선 BMS의 시장 수요를 선도할 계획을 밝혔다.

그림 7. 2025 인터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부스

그림 8. 2025 인터배터리 SK온 부스 조감도



자료: LG에너지솔루션, 그로스리서치

자료: SK온, 그로스리서치

4. 관련 기업

그림 9. 2025 인터배터리 관련 기업 요약

기업명	기업 개요	시가총액
포스코퓨처엠 (003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년 설립. '01년 코스닥 상장, '19년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주요 사업: 내화물 제조, 판매, 시공 및 보수 및 이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사업 매출 비중: 내화물 13.1%, 라임화성 21.2%, 이차전지 소재 65.8% 2025 인터배터리에서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천연흑연 음극재, LMR, LMFP 연구개발 현황 및 로드맵 제시 	10조 1,012억원
피엔티 (13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년 설립, '12년 코스닥 상장 주요 사업: 2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등 각종 IT용 소재 생산하는 장비 제조 기업 매출 비중: 별도기준 2차전지 사업 78.7%, 소재 사업 21.3% 2025 인터배터리에서 김준섭 대표이사의 건식전극 공정 기술 및 동향 발표 예정 	1조 447억원
LG화학 (05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년 설립. '0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요 사업: 석유화학 사업, 첨단소재 사업, 생명과학 사업, LG에너지솔루션, 기타 매출 비중: 석유화학 37.9%, 첨단소재 5.5%, 생명과학 2.6%, LG에너지솔루션 52.4%, 기타 1.6% 등 대규모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및 PPES 신규 고객 추가 기반으로 2025 인터배터리에서 양극재 중심의 이차전지 소재 전시 계획 	16조 598억원
엘앤에프 (066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년 설립. '24년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주요 사업: 2차전지 양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 관련 소재의 제조, 판매 사업 매출 비중: 제품 97.2%, 재료 0.0%, 기타 2.8% 2025 인터배터리에서 LFP 양극재, 하이니켈 NCM 양극재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전략 공개 	2조 6,388억원
동원시스템즈 (014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년 설립. '9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요 사업: 연포장재, 알루미늄박부터 이차전지 소재 등을 제조, 판매 사업 매출 비중: 연포장/PET/유리병 49.3%, 제관 36.2%, 알루미늄 6.7%, 수지 2.7%, 인쇄 2.2%, 기타 2.8% 2025 인터배터리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캔, 초고강도 양극박 기술 역량 공개 	1조 437억원
LS ELECTRIC (01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년 설립. '94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요 사업: 전력기기 및 자동차 기기 시스템의 제조 및 공급, 그린에너지 사업 매출 비중: LS 일렉트릭 59.4%, LS 일렉트릭 아메리카 10.0%, 메탈 12.0% 2025 인터배터리에서 LS 그룹 주요 계열 6개사와 함께 ESS, 전기차, 직류 솔루션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 토탈 솔루션 공개 계획 	7조 5,150억원

자료: 그로스리서치

동원그룹의 첨단소재 전문 제조 기업

동사는 '80년 5월에 설립되어 '94년 3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동사는 종합패키징 및 첨단소재전문기업으로서 연포장재, 알루미늄박부터 이차전지 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다. '24년 3분기 기준 매출은 연포장/PET/유리병 49.3%, 제관 36.2%, 알루미늄 6.7%, 수지 2.7%, 인쇄 2.2%, 기타 2.8%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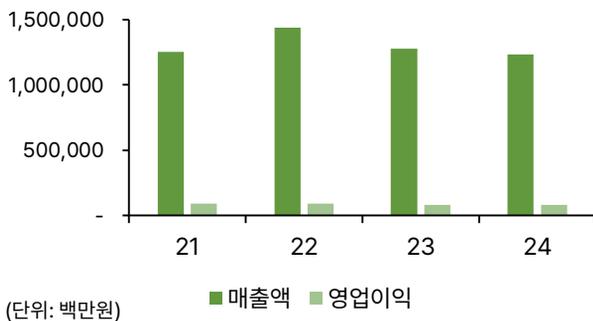
참치 캔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캔까지

동사는 본업인 음식료 패키징 사업에서 꾸준히 평균 8% 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20년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하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차전지 배터리 R&D 인력을 약 200명 가량 고용하며 사업부를 구축했으며, 초기 투자비용은 본업인 음식료 패키징 사업의 이익 유지 및 성장으로 보충하는 상태이다. 이번 2025 인터배터리에서 동사는 원통형 배터리 캔, 셀파우치 등 다양한 이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와 독자 기술 및 R&D 역량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사는 캔 절단면 부식을 막는 기술과 연간 4억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국내에서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캔인 지름 46mm 모델을 고객사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동원시스템즈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은 2170 CAPA 연간 3억개, 4680 연간 7천만개 수준으로 완공되었으며, 4680 공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올해 상용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6mm 배터리의 전극공정이 완료되면 동사의 캔 소재 수혜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강도 양극박 소재도 공개

동원시스템즈는 2025 인터배터리에서 개발한 초고강도 양극박 소재를 공개할 예정이다. 초고강도 양극박(양극재를 지지하는 소재,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개발하며 현재 고객사 요구에 따라 맞춤형 생산을 진행 중이다. 동사의 초고강도 양극박은 인장 강도가 33kgf/mm²로 일반 고강도 양극박 대비 20% 이상 강하여 전극 제조 과정에서 균열을 방지하고 배터리 품질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알루미늄 양극박은 최종 수요처인 미국 전기차업체의 향후 성장에 따른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

그림 10. 실적 추이



자료: DART, 그로스리서치

그림 11. 원통형 배터리 공장 이미지



자료: 동원시스템즈, 그로스리서치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기업

동사는 '00년 7월에 설립되어 '24년 1월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 기업이다. 동사는 2차전지 양극활물질 및 양극활물질 관련 소재의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이다. '24년 3분기 기준 매출은 제품 97.2%, 재료 0.0%, 기타 2.8%이며 주요 주주로는 최대 주주인 (주)새로닉스가 14.31%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23.74%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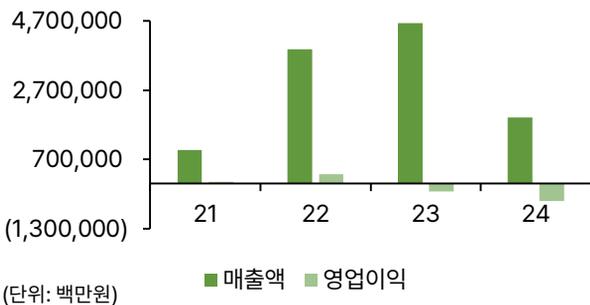
국내 최초 LFP 양극재 양산 계획, 다가오는 2026년을 주목

글로벌 이차전지 종합소재 전문기업인 엘앤에프는 2025 인터배터리에서 LFP 양극재와 하이니켈 NCM 양극재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대한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기존보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생산 효율 및 가격 경쟁력을 동시 확보한 독자적인 동사의 LFP 공법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엘앤에프는 국내 셀 기업과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신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LFP 배터리는 모두 EV 및 ESS 향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기 CAPA는 5만톤으로, 그 외에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협력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이번 2025 인터배터리가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엘앤에프는 현재 대구 구지 3공장 내에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및 2.7g/cc 고밀도 소재 생산 진행으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슬라가 주도할 원통형 배터리 수요, 동사 하이니켈 NCM 수혜 전망

LFP 양극재 외에도 동사는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초 지름 46mm용 하이니켈 복합 양극활물질을 2025 인터배터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지름 46mm용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니켈 함량 95%의 양극 활물질 상용화에 성공한 동사의 하이니켈 NCM은 기존 하이니켈 대비 에너지 밀도 및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Tesla가 주도하는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낙관적인 환경 속에서 동사의 높은 원통형 배터리향 공급 비중은 가시적인 실적 회복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림 12. 실적 추이



자료: DART, 그로스리서치

그림 13. 2025 인터배터리 엘앤에프 부스



자료: 엘앤에프, 그로스리서치



GROWTH RESEARCH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로스리서치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